

피부근염의 동반질환으로 발현한 간질성페질환(BOOP)

성별 여 나이 50세 직종 강선 도금작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이○○(여, 50세)은 1980년 입사하여 모선반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11월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피부근염 및 이차성 간질성 폐렴(의증)'으로 사망하였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모선반에서는 통신용 동복강선을 도금하는데, 설비는 자동화되어 있으며 전선이 라인을 타고 흘러가면서 도금이 이루어진다. 근로자 이○○는 동복강선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타고 흐르는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작업시 투여되는 화학약품은 불산, 염산, 시안화나트륨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흡연력은 없으며 입사 후 2000년 8월까지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 2000년 11월 폐렴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시행한 단순 흉부 방사선촬영상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있었고,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에서 BOOP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CK, GOT, GPT, LDH, ESR이 증가하고 항핵항체가 양성이었으며, 손가락 끝의 박리 부위 피부생검상 림프구 침윤 소견이 있는 등 피부근염에 부합

하였다.

4 고 찰

망 근로자 이○○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BOOP)이 피부근염과 동반되어 발생 한 것인지, 아니면 피부근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근육 증상이 나타난다는 임상적 경과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나쁜 예후 등은 피부근염에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에 부합하 는 소견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작업 중 노출된 불산, 염산, 시안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들에 의해 간질성폐질환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호흡부전을 일으켰을 가능 성도 있었는데 2000년 8월까지 과거 건강진단의 단순 흉부방사선촬영에서 정상이었 으므로 그 가능성은 떨어졌다.

5 결 론

업무와 관련하여 BOOP 등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 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부근염과 동반되어 발생한 BOOP가 호흡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